



책 속의 밑줄 긋기

“모든 것의 바탕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란 뭐냐?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 달리 말하면, 경험되는 모든 것입니다. 이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전부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이들을 붙일 수도 없고, 어떤 식으로든지 그 모습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느낌을 갖든, 어떤 욕망을 갖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전부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다 하는 일이지요.”

〈禪으로 읽는 금강경〉중에서

“갈매기들도 넘실대는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느리게 날고 있다. 그 몸짓이 신비로워서 눈을 땔 수가 없다. 갈매기는 그렇게 자연에 순응하며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걷는 곳마다 마음꽃이 피었네〉중에서

# Books

## “마음을 깨달으면 곧 진리를 깨닫는 것”... 言句보다 ‘마음법’ 해설

### 禪으로 읽는 금강경

김태완 지음 | 침묵의 향기 펴냄 | 3만 2천원



동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독송된 금강경은 선종, 교종을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진다. 육조혜능 대사는 출가 전 장차 팔러 시장에 나왔다가 어느 탁발승이 외우던 금강경 구절을 듣고서 처음 법을 깨쳤으며, 금강경은 육조혜능의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 조계종의 소의경전이기도 하다.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도 금강경 해설서는 수없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이 설법한 〈禪으로 읽는 금강경〉은 다수의 해설서와는 궤를 달리한다. 금강경의 연구를 해설해 알음알이를 늘리거나 생각으로 이해하게 하는 대신, 금강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리켜 보여 주고자 하는 것, 즉 모든 것의 바탕인 ‘마음’을 시종일관 분명히 가리켜 보여 줌으로써 진지하게 발심한 구도자라면 단박에 깨달음의 자리에 눈을 뜰 수 있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흔히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한다. 그런데 무엇을 깨닫는다는 말인가? 선종의 교리인 ‘직지인심 견성성불’이 나타내듯이, 깨달음이란 우리의 본래 성품인 ‘마음’을 깨닫는다는 뜻이다. 마음이 곧 진리이므로, 마음을 깨달으면 곧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우리

가 흔히 ‘내 마음, 네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아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자 바탕이 되는 깨달음의 마음은 다르다. 이 마음은 나뉘어 있지 않고 결코 둘이 아니므로 불이법(不二法)이며, 마음뿐이고 마음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무부법(無漏法)이며, 우리에게 본래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고 늘 자연스럽게 활용되므로 무위법(無爲法)이며,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지지도 않으므로 불생불멸(不生不滅)이며,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으므로 부증불감(不增不減)이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므로 불구부정(不垢不淨)이며, 우리의 참 존재이므로 본래면목(本來面目)이다. 사실은 이 마음 하나밖에 없다.

“사실은 이 진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진

실 하나밖에 없지, 다른 뭐가 복잡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당연하고, 한 번도 사이가 벌어진 적이 없는, 너무 당연해서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금강경〉, 아시아에서 가장 널리 독송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 설법서 금강경이 가리키는 지향점 해설 “깨달음, 본래성품인 마음 아는 것”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목을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이야기하죠? 눈을 깜박깜박하고, 숨도 쉬고, 눈길을 이리저리 돌리고 하는데... 여기에 대

해서 우리가 의심해 본 적이 없죠? 눈 깜박이는 이게 무엇인가? 목을 끄덕끄덕하는 이게 무엇인가? 숨 쉬고 있는 이게 무엇인가? 모든 부처와 조사와 선사들이 가리키려 했던 것도 이 마음이고, 모든 경전이 가리키는 것도 역시 이 마음 하나뿐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도자들이 마음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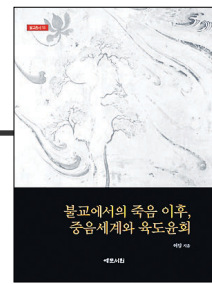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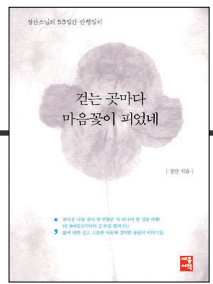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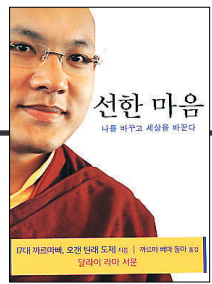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 도(道)라고 하는 이름, 깨달음이니 불성이니 반야니 하고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그 이름에 맞는 대상은 없습니다. 왜냐? 그 이름에 걸맞은 어떤, ‘이것이 마음이다’ 라는 게 있으면, 다시 바깥에 그와는 다른 무엇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도다’ 라는 게 있으면 또

이것 아닌 다른 것이 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도라는 것은 별 붙일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도라는 것을 중요시하느냐 하면, 도 바깥으로 벗어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체는 유심조(唯心造)라고 하듯이 전부 다 이것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근본이요, 바탕이요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은 잘못된 방식으로 찾으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것이지만, 진리를 깨친 선지식의 바른 지도를 받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다. 이 책은 79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을 통해 수많은 방향에서, 수많은 손가락으로 이 마음 하나를 가리키므로, 책을 읽는 동안 독자로서 하여금 저절로 몰입되어 이 마음 하나를 가장 효과적으로 밝힐 수 있게 했다.

김주필 기자 kimj4217@hyunbul.com

### 새책



### 17대 까르마빠 최초 법문집

#### 선한 마음

까르마빠 오겐 탄래 도제 지음 | 지영사 펴냄 | 1만 8천원

17대 까르마빠는 티베트에서 태어나서 14살에 인도로 망명했는데, 전통 사원교육과 철학교육 외에도 역사, 과학,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도 배우는 한편 사람들을 접견하면서 법을 전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미국에서 온 대학생들에게 법문한 것을 정리한 까르마빠 최초의 법문집이다. 내용은 불교교리나 수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는 일에 대한 궁금증에 답한 것이다. 까르마빠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더불어 사는 삶, 지구환경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닌 선한 마음을 일깨워 자신이 바뀌면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까르마빠는 분노가 가장 위험한 질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법을 이야기한다. 또한 이민자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등 우리들의 삶에 밀착된 소중한 가르침들을 전하고 있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한 관계, 사랑, 갈등해소법 등 우리 삶 속에서 한번쯤 맞닥뜨릴 문제들에 대한 삶의 지혜를 들려주고 있다.

### 장산 스님의 53일간 만행 일기

#### 걷는 곳마다 마음꽃이 피었네

장산 지음 | 세종서적 펴냄 | 1만 3천원

2013년 10월, 장산스님은 20여 년간 마음에 품고만 있던 만행 길에 올랐다. 부산 세존사에서 설악산 낙산사까지 그리고 다시 부산 세존사로 회향하는 53일간, 1천 300킬로미터를 걷는 전국 도보 순례였다. 매일 25킬로미터 이상을 걸으며 장산스님이 만났던 바깥의 세상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그리고 ‘시간을 들여 오래 걷는 다’는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장산스님이 깨달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이 책은 前 동명불원 주지이자, 현재 부산 세존사의 회주인 장산스님이 써내려간 53일간의 만행일기다. 애초에 장산스님은 도보 수행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을 실제로 만나보고, 불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부처님의 지혜를 더듬고자 했다. 하지만 고통을 참으며 쉬지 않고 걷는 수행의 길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성찰하고 재발심하는 깊은 사유의 과정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평생 수행자로 살아온 한 스님이 떠난 국토 순례의 기록이자, 길 위에서 수행자의 불교적 성찰의 결정체이다. 세속에서 만난 인연들과 그들을 통해 얻은 선지식과 지혜들, 그리고 수행생활에서 벗어나서 길을 걸으며 얻은 인생에 대한 뜻밖의 배움 등은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적 이야기다.

### 고구정녕한 법화경 신행 지침서

#### 삶의 브릿지

일우 스님 지음 | 해조음 펴냄 | 1만 3천원

〈삶의 브릿지〉는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평생 법화행자로서 수행과 전법에 매진해온 효동 일우 스님의 고구정녕(苦口丁寧)한 신행 지침서다. 법화경에서 강조하는 ‘믿음’이 수행생활의 근간이 되어야 그 위에서 열매 맺고 꽃을 피우며 결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매우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펼쳐 보임으로써 독자로서 하여금 믿음이 삶을 건너는 최고의 다리가 됨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스님은 머리말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한다. BTN 불교TV를 통해서도 꾸준히 법화신행을 강의하는 일우 스님은 그동안 크고 작은 법회에서 오롯이 한결같이 강조해온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 책에서 친절하게 인도함으로써 믿음이 삶의 회로에락을 건너는 튼튼한 다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다.

특히 법화경 사경으로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는 법을 제시하며, 어떻게 믿음을 갖고 수행 생활을 해야 진정한 행복에 다다를지 안내한다. 책 구성은 신(信), 해(解), 행(行), 증(證), 의 네 개의 장으로 나누어 믿음과 가르침, 보살행과 마음의 증득에 이르는 28가지 내용을 담았다.

### 49재는 왜 하는 것일까?

#### 불교에서의 죽음 이후, 중음세계와 육도윤회

하람 지음 | 예문서원 펴냄 | 1만 7천원

저자는 말한다. “책 집필 된 뒤 불교신자들이 49재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49재를 왜 하는지, 49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단지 망자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위의 말만 듣고 49재를 하는 분이 많았고 게다가 망자를 위해 49재를 지내지만, 육도윤회를 믿지 않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음세계와 육도윤회의 세계를 집필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크게 2개의 장으로 나누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제1장에서는 중음세계에서 망자가 누구에게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한다. 더불어 망자가 재판 받는 49일 동안 유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한다. 제2장에서는 중음세계 재판에 따라 망자가 가는 곳인 지옥, 아귀, 아수라, 축생, 인간, 천계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저자가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지옥도와 아귀도이다. 경전에서는 지옥 중에 팔열지옥을 136개로 분류해 기술하는데, 이 지옥에는 현생서 어떤 죄를 지은 자가 떨어지며, 이곳에 오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상세히 언급한다. 그리고 경전에서는 아귀를 36종류로 나눠 설명하므로, 36종류의 아귀에 대해서도 본문과 미주를 통해 설명한다.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도 모집합니다



종정 석능인

- 종 정 : 해강당 석능인대종사
- 총무원장 : 대웅당 혜승

본 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근본교리와 조선불교종흥조 경허선사의 선종을 이어받은 우각도일선사 법맥으로 종지종풍을 세우고 종정 석능인대종사께서 본 종을 16년전 창종을 하여 많은 종사들을 품계를 품수하였고 품수반은 종사님들이 각 계단을 창건하는 등 불교종흥에 많은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불타 탄생지 네팔 례비니를 무려 서른 다섯번이나 다녀오면서 한국불교위상을 널리 알리고 2년전에는 례비니동산 마야데비사원에서 세계최초로 세계불교문화평화축제를 개최하셨습니다.

지금도 네팔, 대만, 태국, 중국 등으로 세계적인법회행사에 초빙되고 있으며 수행자들을 적극 추천하여 불교국가에서 수행 및 유학을 할 수 있도록 본 종에서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종에서는 종도모집하오니 총본산에 연락을 주시면 등록하는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 5길 197번지 각황사  
 행정실 | 053) 325-0400. 팩스 / 053) 325-4848. 문의 / 010-7283-0089  
 총무원 |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 80-1 불광사  
 선 원 | 부산시 사상구 모라동 1004-1 흥제선원

## 건물안내



- 위치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웅암리 272-27번지
- 2층 건물 한 채, 한옥기와집 한 채
- 대지 400평, 전 400평
- 용도 : 사찰, 납골당, 양로원, 요양병원  
여러가지 적합, 현재 별장으로 사용중
- 가액 : 1억 5천 대출안고 3억 현금 가능함 (조정가능)

- 위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복룡리 874-9번지
- 2,143평 / 창고 1동
- 바닷가 바로 앞, 평당 14만원 (조정가능)

- 위치 : 전남 진도군 지산면 영무리 산19번지 21-2번지, 22번지
- 세 필지 14,600평 ■ 가액 : 1억 1천만원 (조정가능)
- 사찰, 전원주택, 별장, 여러가지 과수 농장, 약초 재배도 가능

■ 상담전화 : 010-8666-6210

## 봉침교육 숙박휴양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영양소 수시 건강상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동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